

배포일시	2025년 3월 31일	보도일시	2025년 3월 31일(즉시)
사진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쪽수	1쪽(본문1)
담당자	유민상 팀장(02-6959-8084/media@kdaxa.org)		

DAXA, 금융 취약 계층 대상 가상자산 금융사고 예방 교육 성료

- 강남, 노원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교육 진행, 총 100여 명 참석
- 가상자산 교육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올해 3월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DAXA는 지난 3월 7일과 26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노원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을 주제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두 차례 실시된 교육에서는 DAXA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가상자산에 대한 기초 설명, 주요 투자사기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안내,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DAXA가 지난해 제작한 로맨스 스캠 카툰 리플릿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을 마련한 계기는 대한민국 노년층이 어렵게 마련한 은퇴자금을 노리는 가상자산 연계 리딩방 및 불법 다단계 가입 권유 등의 투자사기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가상자산이라는 생소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진행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피해 예방을 주목적으로 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고령층을 비롯한 가상자산 취약 계층이 가상자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춰, 투자사기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DAXA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